

광주·전남 '아름다운 나눔' 활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가 타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부당 및 비리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한 가운데도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25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기부한 광주·전남 지역민은 모두 6243명에 이른다. 올해 기준된 물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내의 저소득 가정으로, 학비와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정서지원교육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윤장현(61) 아름다운가게 전국 고문은 "행사를 한 번 할 때마다 모이는 사람들은 3만~4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타지역에 비해 정서적으로 호남 지역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며 "기부와 시민단체의 관심만 있다면 시민들



25일 오후 아름다운가게 광주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양태(55) 씨가 기증한 겨울철 보온신발 1000여 켤레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해 지역민 6243명 참여 기증 물품 30만여점 달해 북구 김양태씨 신발 1000여 켤레 기부

품만 해도 30만여 점이다. 대구·경북 24만점, 대전·충청 19만점, 강원 12만점, 전주·전북 8만점 등 타 지역에 비해 최고 3배 가량 많다.

매장 수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광주·전남 11개소로, 대구·경북 3개소, 전주·전북 6개소에 비해 2~3배를 넘어섰고 있다. 각 매장에는 하루 평균 10여 명이 물건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물품을 싼 가격에 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10개 매장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 돌아간 금액만도 지난해 33억2800만원에 달한다.

의 참여는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 북구 신안동 아름다운가게 광주지역에서 열린 '아름다운 나눔 행사'에서도 하루 매출 417만3400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 9000여점을 판매한 이날 행사에 다녀간 시민만 해도 700여 명, 팔린 물품 수만 해도 2500점에 이른다.

이날 북구에 사는 김양태(55) 대영신발 대표는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겨울철 보온용 신발 등 아동용·성인용 신발 1000여 켤레를 기증해 눈길을 끌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북구청 '대형마트' 결국 허가

지역 중소기업·시민단체 반발 거셴

광주 북구청이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지역에는 모두 15개의 대형마트(면적 3000㎡)가 진출하게 되는 셈이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다.

북구청은 25일 오전 청사 2층 상층실에서 개최한 대책위와의 회의에서 오는 30일 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인 S

법에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북구청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며, 이 결정문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을 S법에 배상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배상액도 부담하기 어려운 큰 금액인 만큼 허가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장구한 위원장은 "북구청이 형식적인 대응만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이제와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책위는 대책회의를 열고 천막농성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는 대형마트 14개, SSM 16개 등 대기업 유통업체 30개가 진출해 있으며, 점포 1개당 인구가 4만 7788명으로 과포화 상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 쌀 품질 저하?

올비축용 수매 특등급 비율 20%P 하락

올해 수확한 전남지역 쌀 품질이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삭기온 등 기상악화가 작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쌀값마저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수매한 공공비축용 쌀 가운데 특

등급 비율은 22.6%(40kg들이 242만가마)로, 지난해 특등급 비율(43.4%)에 견줘 무려 20.8%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1등급의 경우 71.3%(172만7000가마)로 전년도 55.6%에 비해 15.7%포인트가 증가했다. 2등급도 5.9%(14만3000가마)로 지난해

(1%)보다 증가했다. 특등급 비율이 이처럼 크게 떨어진 데는 잦은 비와 이상저온 등 기상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쌀 품질 저하는 쌀값에도 영향을 미쳐 전남 산지 쌀값(80kg)의 경우 12만8796원(11월 15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1월15일 기준 13만6548원)와 비교해 5.7%나 떨어졌다. 하락폭은 강원(-6.1%)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시디자인 석학들 오늘 광주서 토론회

도시디자인 석학들 오늘 광주서 토론회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각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이 광주에 모여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 이들은 지역대학 교수 및 전문가들과 광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디자인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5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산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노르웨이의 아비드 오펜비 RATIO 건축사무소 대표,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인 막달레나 예델로 목일 핀란드예술대학 교수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윤현석기자 chadol@

고흥 원전 유치위 발족

고흥군 일부 인사들이 원자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유치를 적극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고흥하나웨딩뷔페에서 도양을 번영회장과 고흥읍 JC특우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이온소협회 전남동부지회 355-b3 지구 남현옥(66) 전 총재를 만장일치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사진)

유치추진위는 다음달 10일께 창립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태호(55) 전 고흥JC회장은 "원전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고 안전한 미래산업"이라며 "원전유치를 통해 인구도 유입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1982년 1월 고흥군 도양을 잠거리 일대 78만평이 원전후보지로 지정고시됐다가 1998년 10월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해제된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iu@

나주 예술극단 '예인방' 서울 공연 취소

김치 들고 연평도행...주민 위로

나주지역 전문 예술극단 '예인방'(대표 김진호)이 김치를 들고 연평도를 찾아가겠다.

예인방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연극 '김치' 공연을 취소하고 북한에 폭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김치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출연 배우와 스태프들은 각 당 대표와 의원들을 초청해 연극 공연을 한 뒤 소외계층과 관객들에게 김치를 나눠줄 예정이었으나 취소했으며, 대신 배우와 스태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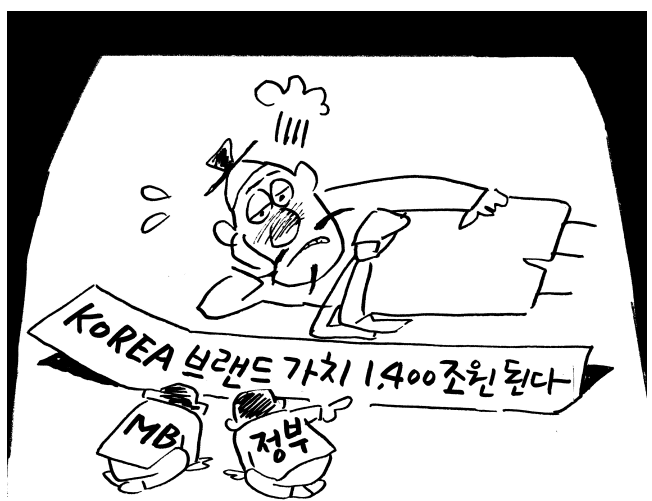
직접 담긴 나주 김치 500여 포기를 연평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진호 대표는 "예술 행위도 결국 사람이 먼저인데, 연극 '김치'를 준비하면서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배웠다"며 "두려움에 지친 연평도 주민들에게 김치가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주예총 회장으로, 현재 SBS정치드라마 '대물'에서 김현욱 의원으로 출연을 펼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빛의 만평

- 김종두



그럼 뭐하니? 나라도 못 지키는데...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미'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직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엣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로국내 최대곡이 내장되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켈러트 시계가 아심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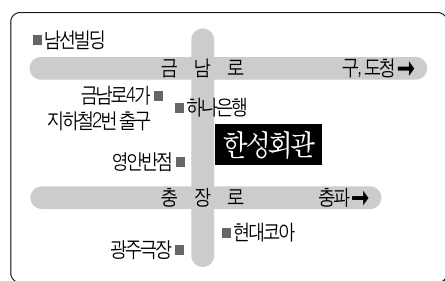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 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新裝開業案内

30년을 이어온 -

日式 韓成會館 이 11월 23일 새로운 모습으로 최신식내부 확장수리하여 임직원 모두가 더욱더 정성과 친절 봉사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0년 11월 일

한성회관 대표 한상 열 拜上:

예약문의

062-224-2841~2 · 010-4922-2842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전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광주18기) 11월 26일(금) 14:00-17:00
광주19기) 11월 27일(토)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絡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학(3년) 중의계(5년) 졸업증과 중국침구사, 중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총동문회 창립(2010.5.29) CH중국문화원 전문과정 졸업자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